

세븐 서미트, 남극 한곳만 남았다

〈Seven Summit=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세븐 서미트(Seven Summit), 남극 하나만 남았다”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도전 중인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44·에코로바 홍보이사)씨가 최근 오세아니아 대륙 최고봉인 코지어스코(Kosciusko·2,228m)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김씨는 7개 봉 가운데 남극 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만 남겨두게 됐다. 김씨가 빈슨 매시프 등정에 성공하면 장애인으로서 한국 최초로, 일반 산악인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로 7대륙 최고봉에 오르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10분경(현지시간)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남동부에 위치한 코지어스코봉을 노발 루트르 단곡 등정했다. “코지어스코는 현재 겨울 시즌으로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올라야했죠. 고도가 낮고 등반루트도 평이해 별다른 어려움 없었어요” 세계 산악계는 오세아니아 최고봉으로 김씨가 오른 코지어스코와 인도네시아 아이안자야섬에 위치한 칼텐츠(4,884m) 등 두 곳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같은 해 아

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1998년 남미 아콩가구아(6,959m)와 북미 맥킨리(6,194m)를 잇따라 등정한 뒤 울타리 지난 5월 16일에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아시아 및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에 올랐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깃발을 휘날리며 엑스포 유치 기원에 힘을 보탤다. 맥킨리와 킬리만자로를 두 번씩 등정했다.

8,000m급 14와 도전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가셔브롬Ⅱ(8,035m)와 시사판마(8,027m)에 이어 에베레스트까지 세 개봉을 1년만에 오르는 기업을 토론했다. 오는 8월에는 다올라기리(8,167m) 원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씨의 거친등 도전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열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2급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고흥 출신으로 송원대산악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암벽대회와 알파인·노르딕스키대회에서 입상한 촉망받는 산악인이자 스키선수였던 김씨는 지난 1991년 맥킨리 단독 등정 중 동상에 걸려 양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 ‘산에 바쳐야했다. 시련과 실의는 했지만 좌절은 없었다. 김씨는 1997년부터 다시 암장을 오르며 고산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씨 오세아니아 대륙 최고봉 정상 올라 “12월 남극 도전, 장애우 희망 될 것”

등반의 꿈을 키워왔다.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장애우들과 동반 도전 부상당한 후배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등정 성공에는 지역산악계 선배들의 도움이 컸다. 지난해 에베레스트에 함께 올라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등정한 김미곤(35·광주시산악연맹)씨는 손가락이 없어 캠프 및 로프 설치나 취사, 심지어 지퍼 올리는 일조차 힘든 김씨의 손을 되어 극한 상황을 함께 이겨냈다. 동료 산악인들도 원정대를 꾸릴 때마다 힘을 보탤다.

김씨는 “등반이 힘들어 뒤를 돌아보게 될 때면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고 밝혔다.

7대륙 최고봉 원정 10년째인 올해 12월에 마지막 남은 남극 빈슨 매시프에 도전할 예정인 김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보다 원정 경비 마련이다. 극지 원정을 도울 대원 3~4명과 함께 하는데 1억 5천만원 가량의 거액이 들기 때문이다. ‘희망 전도사’ 김씨의 끝없는 도전에 지역인들의 성원을 기대해본다. /정흥식기자 who@kwangju.co.kr

“이재민 여러분 힘내세요”

‘은사마’ 배웅준, 日 지진 피해 위로 메시지

한류스타 배웅준이 일본 니가타현 주에 쓰추 지진으로 피해를 본 관과 이재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배웅준은 17일 오후 3시 일본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재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상황을 듣고 여러분의 안부가 걱정된다”면서 “가족(팬) 여러분은 물론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는 위로의 글을 전했다.

그는 이어 “피난하신 분들을 비롯해 여러분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유인촌씨, 송원대에서 ‘문화로 승부’ 강연

유인촌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19일 오후 3시 송원대학교 소강당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유씨는 ‘문화로 승부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동아연극상, 이해랑연극상 등을 수상한 유씨는 극단 유시어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추길 민족통일 전남도협의회장 취임



김추길(63) 제10대 민족통일 전남도협의회장이 18일 광주 상록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다. 김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틀을 공고히 다져가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민족이 하나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베컴 홍보맨 알고보니 ‘한국인’

LA 갤럭시 직원 윤웅철씨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2·LA 갤럭시)의 홍보맨을 한국인이 맡는다.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 윤웅철(33)씨다.

윤씨는 지난 1997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 팀대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전공, 미국 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페이스서에서 1년 간 마케팅경력을 쌓은 뒤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37) 축구대표팀 코치가 2003년 갤럭시에서 뛰던 시절 구단에 들어왔다.

최근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갤럭시로 이적하면서 구단 홍보에 베컴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인 흥행과도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떨어졌다.

베컴의 이적이 결정된 당일 하루 갤럭시 시즌 티켓이 3천 장 팔렸고 구단 유니폼만 지금껏 25만장이나 판매됐다. 베컴 등번호 23번이 붙은 유니폼이 날개 돌진 듯 팔린다.



구단 홍보·마케팅 직원 40명 중 유일한 한국인인 윤씨는 국내 축구팀이 로스앤젤레스에 올 때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본프레레와 아드보카트르가 LA 전지훈련을 했을 때 구장 섭외·안내 업무가 그의 몫이었다.

윤씨는 “축구가 좋아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팀은 언제든 돕고 싶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우주인 후보 고산씨가 보내온 훈련일기 중 조종석에 앉아서 자신의 우주복 밀봉 여부를 체크하는 모습.

우주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산씨 훈련일기 공개 거하는 장치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산소가 우주선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우주인 후보 고산(30)씨가 훈련일기를 통해 던진 질문이다.

고씨는 우주인 또는 우주선 설계 기술자의 경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루 600ℓ의 산소와 2.5ℓ의 물, 3천kcal의 식량, 300mmHg 이상의 기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유지에 물과 산소,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그렇다면 왜 일정한 크기의 기압이 필요한 것일까.

우주공간에서의 기압은 0에 가깝다. 따라서 사람의 체온에서도 액체가 끓게 되는 만큼 사람이 우주에 나가는 즉시 온몸의 체액이 끓어 증발해버린다는 것.

압력이 낮은 산 위에서 밥을 하면 ‘하루 600ℓ의 산소와 2.5ℓ의 물, 3천kcal의 식량, 300mmHg 이상의 기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가는 한국 화장실 세계에 전파”

‘화장실 홍보대사’ 된 전직 외교관 최승호씨

“전 세계에서 약 26억 명이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미흡해 매년 수백만 명의 지구촌 어린이들이 사망한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습니다.” 최승호(61) 세계화장실협회(WTA·World Toilet Association) 창립총회 조직위원회 홍보사절단장이 17일 이집트를 찾았다.

최 단장은 지난해 이집트 대사를 끝으로 35년 간의 외교관 생활을 접고 화장실 홍보 대사로 변신했다.

1988년의 하계 올림픽과 2002년의 월드컵 축구 대회를 치르면서 가히 화장실 문화의 혁명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음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는 일념에서다.

최 단장은 오는 11월 21~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WTA 창립총회에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집트, 케냐,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



리트연합(UAE)을 차례로 방문한다.

“화장실 홍보대사를 맡겠다고 하니 집사람은 처음에 멧쩍어 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러나 인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테마가 화장실입니다. 누구나 매일 한두 번씩은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공간 아닙니까?”

최 단장은 심재덕 의원이 이끌고 있는 WTA 창립 운동에 몸담게 된 동기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 개선 사업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개발도상국에서도 퍼지고 있다며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출발한 WTA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동양제철 창업주 이회림 명예회장 별세

동양제철화학의 창업자인 이회림 명예회장이 18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이 회장은 1917년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나 1937년 건복상회를 세우면서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개풍상사 설립, 대한탄광 인수, 대한양회 설립에 이어 1959년에는 서울은행을 창립했으며, 동양화학을 세운 뒤에는 화학산업에만 매진했다.

유족으로는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회장 등 3남3녀. /최경호기자 choic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정수씨 장남 성호군 조성훈(전 일등학원 원장)씨 차녀 하나양=21일(토)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황재룡씨 장남 영진군 장기원(총장서립 대표)씨 장녀 정운양=21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예식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 대상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

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제철협회 광주서부지

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대성초교 제19회 동창회(회장 하호기)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미연복집. 016-651-9772

모집

▲조선대 평생교육원 시낭송 교육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시낭송 지도자 되고 싶은 성인 남녀 및 학생. 문의 016-629-3932

▲광주향교 하계 한문·예절 교육 수강생 모집=7월23일~8월25일까지 1개월간. 사자소학·대학·논어·맹자 및 서예·예절교육·학예집 등.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문의 672-7008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인연빛기학교 차량자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제3회학 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하는 사람. 문의 227-0464

▲광주유교대학 신입생 모집=매주 월·수 수업. 문의 672-6501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자료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한미음장애인지원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복구 운동장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여성생활체육 자선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화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외국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화회 ‘다이아몬드’ 회원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부음

▲김덕순씨 별세 박정규(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영구(삼정산업 대표)·경구(신우종합건설 대표)·인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씨 모친상 강경열(한샘복지협회 사무국장)·조성국(지산농원 대표)·김용운(유용업)씨 빈모상=발인 19일(목)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973-9166

